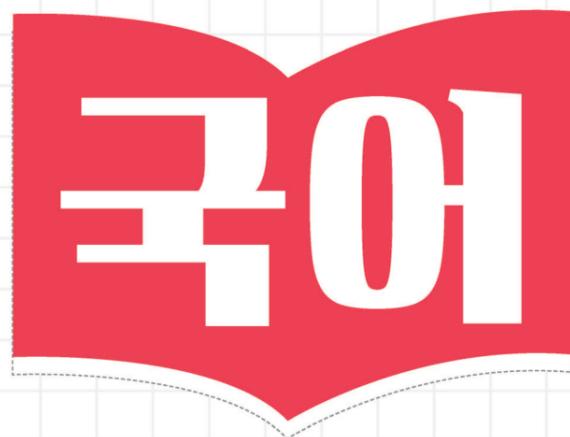


2022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



2022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





2022  
자유학기제 - 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

# 국어





## 들어가는 말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중학교 1학년 초기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중학교 3학년 말은 일종의 전환기로써,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체적, 심리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을 시기에 급격한 학교급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고등학생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적 처방과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최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에 가장 궁금한 정보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어떤 교과목을 배우는지 가장 궁금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진학 후 많아지는 학습량과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이 부담스럽다.’, ‘고등학교 교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싶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보들을 담은 전환기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보급된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전환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전환기 교육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실 있는 전환기 교육 자료집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장의 선생님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교과별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와 상급 학교 진학 후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전환기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다각도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중학교 교육내용을 되새겨 보게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한 학년말 업무량의 증가로 교수·학습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부담 없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자료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배우게 될 교과목, 고교학점제 이해, 교과 진로활동 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급격한 학교급의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을 중학교 교육과정과 잘 접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중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 활동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학년말, 교실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교실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고와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교사들이 활용하기 쉬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실제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고, 각 차시별 활동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교사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별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습지를 차시별로 적절하게 첨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집이 학년말 전환기 교육 활동을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년말 교수·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의미 있고 활용하기 쉬운 자료집이 되기를 기대한다.



# 안 내 말 씀

## 국어과 집필진

- ◎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프로그램」은 상급 학교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찾아 대비하며 상급 학교에 유연한 착지와 성공적인 적응을 가져다주기 위한 전환기 교육 활동입니다.
- ◎ 본 자료집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미리보기, 일반과목과 선택 과목 안내, 국어과 과목별 내용 체계 및 관련 정보, 교과 역량 기르기 Know-How, 전환기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 학년말 자기 계발 시기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관련 내용을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본 자료집의 세부 구성과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국어과 고교학점제 알아보기

- I 장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미리 알아보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일반 선택 과목과 자신의 진로 분야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 역량 기르기 Know-How를 통해 학생들의 국어 교과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II. 전환기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

- II 장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중학교 국어 교과 지식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II 장은 국어의 교과 영역을 듣기·말하기, 읽기, 문법, 쓰기, 문학으로 나누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미래형 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깊이 사고한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소통능력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료집의 내용 중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일부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주제별 1~4차시 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목차



## CONTENTS

|                               |           |
|-------------------------------|-----------|
| <b>I. 국어과 고교학점제 알아보기</b>      | <b>7</b>  |
| 1. 국어과 교육과정 미리보기 .....        | 9         |
| 2. 과목별 내용 체계 및 관련 정보 .....    | 10        |
| 3. 교과 역량 기르기 Know-How .....   | 19        |
| <br>                          |           |
| <b>II. 전환기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b>   | <b>25</b> |
| 1. 국어과 징검다리 교수·학습 활동 개요 ..... | 27        |
| 2. 대화의 힘! 토론으로 소통하기! .....    | 28        |
| 3.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      | 33        |
| 4. 우리들의 이야기 UCC 만들기! .....    | 42        |
| 5.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 .....   | 48        |
| 6. ‘詩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 .....  | 55        |
| <br>                          |           |
| <b>III.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b>      | <b>65</b> |





I



# 국어과 고교학점제 알아보기



1. 국어과 교육과정 미리보기
2. 과목별 내용 체계 및 관련 정보
3. 교과 역량 기르기 Know-How



# I. 국어과 고교학점제 알아보기

## 1

### 국어과 교육과정 미리보기

#### 국어 교과 위계

| 교과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기초   | 국어    | 국어    | 독서<br>문학<br>언어와 매체<br>화법과 작문 | 고전 읽기<br>심화 국어<br>실용 국어 |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의 실정 및 학생 요구,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어 교과 과목을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① 공통 과목 이수 후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어>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입니다. 따라서 <국어>를 이수한 후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② 국어교과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간에는 명확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③ <심화 국어>는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통해 학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 함양에 적합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용 국어>는 상급 학교 진학이 아닌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입니다.
- ④ <실용 국어>는 특성화고의 경우 공통 과목 이전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 ⑤ <고전 읽기>는 별도의 교과서가 없는 과목입니다.

## 국어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동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6~8   |
| 과목 소개 |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국어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인 국어 역량을 갖추고, 국어 활동의 개선과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듣기<br>·<br>말하기 | ○ 듣기·말하기의 본질   | • 사회·문화성  |
|                | ○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br>•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 • 대화[언어 예절]<br>• 토론[논증 구성]<br>• 협상                    |
|                | ○ 듣기·말하기와 매체   |   |
|                | ○ 듣기·말하기의 구성 요소 • 화자·청자·맥락<br>○ 듣기·말하기의 과정<br>○ 듣기·말하기의 전략<br>• 표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 •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
|                | ○ 듣기·말하기의 태도<br>• 듣기·말하기의 윤리<br>• 공감적 소통의 생활화  | • 담화 관습의 성찰   |
| 읽기             | ○ 읽기의 본질   | • 사회적 상호 작용   |
|                | ○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br>•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 •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화제<br>• 한 편의 글과 매체      |
|                | ○ 읽기와 매체   |   |
|                | ○ 읽기의 구성 요소 • 독자·글·맥락<br>○ 읽기의 과정<br>○ 읽기의 방법<br>•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br>• 비판적 이해 • 창의적 이해<br>• 읽기 과정의 점검 | • 관점과 표현 방법의 평가<br>• 비판적·문제 해결적 읽기<br>•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                | ○ 읽기의 태도<br>• 읽기 흥미 • 읽기의 생활화  | • 자발적 읽기  |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쓰기 | ○ 쓰기의 본질  | • 사회적 상호 작용  |
|    | ○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br>•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 • 정서 표현             | • 설득하는 글<br>• 정서를 표현하는 글                             |
|    | ○ 쓰기와 매체  |  |
|    | ○ 쓰기의 구성 요소<br>• 필자 • 글 • 맥락                            | • 쓰기 맥락  |
| 문법 | ○ 쓰기의 과정  | • 고쳐 쓰기 [쓰기 과정의 점검]                                  |
|    | ○ 쓰기의 전략<br>• 과정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  |
|    | ○ 쓰기의 태도<br>• 쓰기 흥미 • 쓰기 윤리 • 쓰기의 생활화                   | • 책임감 있게 쓰기  |
|    | ○ 국어의 본질  | • 역사적 실체   |
| 문학 |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br>•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 음운의 변동<br>• 문법 요소의 특성과 사용                          |
|    | ○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br>• 발음과 표기<br>• 어휘 사용<br>• 문장·담화의 사용     |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
|    | ○ 국어에 대한 태도<br>• 국어 사랑 • 국어 의식                          | • 국어 사랑과 국어 발전 의식                                    |
|    | ○ 문학의 본질  | • 유기적 구조   |
| 문학 | ○ 문학의 갈래와 역사<br>• 서정 • 서사 • 극 • 교술                      | • 서정 • 서사 • 극<br>• 교술 • 문학 갈래의 역사                    |
|    | ○ 문학과 매체  |  |
|    | ○ 문학의 수용과 생산<br>• 작품의 내용 • 형식 • 표현<br>• 작품의 맥락 • 작가와 독자 | • 갈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br>• 다양한 사회 • 문화적 가치<br>• 시대별 대표작 |
|    | ○ 문학에 대한 태도<br>• 자아 성찰 • 타자의 이해와 소통<br>• 문학의 생활화        | • 문학의 주체적 수용과 생활화                                    |

## 화법과 작문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3~7   | 수능 선택 |
| 과목 소개 |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의 듣기·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 다양한 주제 및 유형의 담화와 글을 수용·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       |       |       |       |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화법과 작문의 본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 인식</li> <li>• 대인 관계</li> <li>• 사회적 상호 작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법과 작문의 특성</li> <li>• 화법과 작문의 기능</li> <li>• 화법과 작문의 맥락</li> </ul>  |
| 화법의 원리와 실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법의 구성 요소</li> <li>• 담화의 맥락</li> <li>• 담화의 유형</li> <li>• 화법의 전략</li> <li>• 화법의 표현과 전달 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자아 인식과 자기표현, 갈등 조정]</li> <li>• 토론[반대 신문]</li> <li>• 협상[상황 분석, 협상 전략]</li> <li>• 면접[답변 전략] • 발표[청자 고려]</li> <li>• 연설[설득 전략] • 상황에 맞는 화행</li> <li>•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li> </ul>  |
| 작문의 원리와 실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문의 구성 요소</li> <li>• 작문의 맥락</li> <li>• 글의 유형</li> <li>• 작문의 전략</li> <li>• 작문의 표현과 전달 방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를 전달하는 글[정보의 선별과 조직]</li> <li>• 소개하는 글[작문의 맥락]</li> <li>• 보고하는 글[절차와 결과]</li> <li>• 설득하는 글[논거와 설득 전략]</li> <li>• 비평하는 글[필자의 관점]</li> <li>• 건의하는 글[현안 분석 및 해결]</li> <li>• 친교 표현의 글[독자 고려]</li> <li>• 정서 표현의 글[진정성]</li> <li>• 성찰하는 글[체험의 기록]</li> </ul> |
| 화법과 작문의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공감</li> <li>• 진정성·책임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법과 작문의 윤리</li> <li>• 화법과 작문의 가치</li> <li>• 화법과 작문의 관습과 문화</li> </ul>  |

### ◆ 과목 관련 정보

|            |   |
|------------|---|
| 관련 과목 및 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를 통해 심화할 수 있음.</li> </ul> |
| 관련 직업      | 상담사, 아나운서, 기자, 프로듀서, 작가, 통역사, 번역가, 평론가, 국어 교사, 카피라이터, 출판물편집자, 언어치료사, 법조인, 외교관 등   |
| 관련 학과      |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문예창작과, 통번역학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치료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

## 독서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3~7   | 수능 선택 |
| 과목 소개 |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의 듣기·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 다양한 주제 및 유형의 담화와 글을 수용·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       |       |       |       |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독서의<br>본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과 독서의 가치</li> <li>• 상호 텍스트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책의 선택</li> <li>• 주제 통합적 독서</li> </ul>   |
| 독서의<br>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적 이해</li> <li>• 추론적 이해</li> <li>• 비판적 이해</li> <li>• 감상적 이해</li> <li>• 창의적 이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적 읽기</li> <li>• 추론적 읽기</li> <li>• 비판적 읽기</li> <li>• 감상적 읽기</li> <li>• 창의적 읽기</li> </ul>   |
| 독서의<br>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 독서</li> <li>• 매체 읽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li> <li>•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li> <li>•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li> <li>•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li> <li>•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li> <li>•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li> </ul> |
| 독서의<br>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계획</li> <li>• 독서 활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독서 계획과 실천</li> <li>• 독서 문화에의 참여</li> </ul>  |

### ◆ 과목 관련 정보

|               |  |
|---------------|--|
| 관련 과목<br>및 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 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를 통해 심화할 수 있음.</li> </ul> |
| 관련 직업         | 교사, 작가, 평론가, 번역가, 사서,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문헌학자, 출판물편집자 등   |
| 관련 학과         | 어문계열학과, 국어 및 외국어교육과, 초등교육과, 문예창작과, 문헌정보학과, 독서치료학과, 독서문화컨텐츠학과 등   |

## 언어와 매체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3~7   | 수능 선택 |

**과목 소개**  
2009개정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일반 과목이었던 ‘독서와 문법’에서 ‘문법’ 부분을 분리하고 여기에 ‘매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한 과목이다. ‘언어와 매체’는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의 문법 영역과 매체 관련 내용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 음성 언어·문자 언어·매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이를 실제 의사소통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언어와 매체의 본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와 인간</li> <li>매체와 소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와 국어의 특성</li> <li>국어의 위상</li> <li>매체의 유형</li> <li>매체 소통의 특성</li> </ul>  |
| 국어의 탐구와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운·단어·문장·담화</li> <li>국어 자료의 다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운의 체계와 변동</li> <li>품사와 단어의 특성</li> <li>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li> <li>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li> <li>문장의 짜임과 활용</li> <li>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li> <li>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li> <li>시대·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li> <li>매체·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li> <li>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li> </ul> |
|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 매체</li> <li>전자 매체</li> <li>대중 매체</li> <li>복합 양식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의 소통 방식</li> <li>매체 자료의 수용</li> <li>매체 자료의 생산</li> <li>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li> <li>매체의 영향력과 가치</li> <li>매체 문화의 향유</li> </ul>  |
|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생활</li> <li>매체 문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생활 성찰</li> <li>매체 언어생활 성찰</li> <li>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li> </ul>   |

### ◆ 과목 관련 정보

|                   |   |
|-------------------|---|
| <b>관련 과목 및 위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진로 선택 과목인 ‘심화 국어’를 통해 심화할 수 있음.</li> </ul> |
| <b>관련 직업</b>      | 국어교사, 초등교사, 작가, 평론가, 언어치료사, 출판물편집자, 카피라이터,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통역사, 번역가 등   |
| <b>관련 학과</b>      |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초등교육과,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언어치료학과, 광고홍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등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3~7   | 수능 선택 |
| 과목 소개 |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의 문학 영역을 심화·확장한 과목으로, 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작품을 수용·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고 문학에 관한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여 문학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       |       |       |       |       |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문학의<br>본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예술</li> <li>진·선·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과 세계의 이해</li> <li>삶의 의미 성찰</li> <li>정서적·미적 고양</li> </ul>  |
| 문학의<br>수용과<br>생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 능력</li> <li>문학문화</li> <li>작가와 독자</li> <li>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li> <li>문학의 확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의 내용과 형식</li> <li>작품의 맥락</li> <li>문학과 인접 분야</li> <li>작품의 수용과 소통</li> <li>작품의 재구성과 창작</li> <li>문학과 매체</li> </ul>     |
| 한국<br>문학의<br>성격과<br>역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학</li> <li>문학사와 역사적 갈래</li> <li>문학과 사회·문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과 범위</li> <li>전통과 특징</li> <li>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li> <li>문학과 시대 상황</li> <li>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li> <li>한국 문학의 발전상</li> </ul> |
| 문학에<br>대한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 성찰</li> <li>타자의 이해와 소통</li> <li>문학의 생활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 성찰, 타자 이해</li> <li>공동체의 문화 발전</li> </ul>   |

◆ 과목 관련 정보

|               |  |
|---------------|--|
| 관련 과목<br>및 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전문 교과I의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문학 개론', '문학과 매체' 과목으로 심화할 수 있음.</li> <li>전문 교과I의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과목의 기초가 됨.</li> </ul> |
| 관련 직업         | 시인, 소설가, 극작가,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평론가, 번역가, 교사, 언론인, 프로듀서, 출판물편집자, 카피라이터 등   |
| 관련 학과         |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과, 예술치료학과, 문화컨텐츠학과, 통번역학과 등   |

## 실용 국어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2~8   | -     |

**과목 소개**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국어'보다 먼저 이수가 가능하다.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직무 어휘와 어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 선택</li> <li>문장 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맥락에 맞는 어휘</li> <li>어법에 맞는 문장</li> </ul>                       |
| 정보의 해석과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해석</li> <li>정보 조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의 수집과 분석</li> <li>정보의 추론과 해석</li> <li>정보의 조직과 전달</li> </ul> |
| 설득과 협력적 문제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득</li> <li>의사 결정</li> <li>문제 해결</li> <li>갈등 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장과 근거</li> <li>합리적 의사 결정</li> <li>협력적 문제 해결</li> </ul>       |
|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인 관계</li> <li>언어 예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예절</li> <li>공감적 소통</li> </ul>                              |
| 문화와 교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 문화</li> <li>자아 성찰</li> <li>교양 함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li> <li>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성찰과 교양 함양</li> </ul>        |

### ◆ 과목 관련 정보

|            |   |
|------------|---|
| 관련 과목 및 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전문 교과Ⅰ의 '문장론'과목으로 심화할 수 있음.</li> </ul> |
| 관련 직업      | 교사, 작가, 언론인, 일반공무원, 회사원 등   |
| 관련 학과      |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학과, 행정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

## 심화 국어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2~8   | -     |

**과목 소개**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이다. 상급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가 수준 높은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학습자 자신이 선택한 전공 영역에서 원활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 탐구를 위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리적 사고</li> <li>• 정보 활용</li> <li>• 정보 소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중 분석</li> <li>• 정보 수집과 분석</li> <li>• 정보의 조직</li> <li>• 정보 표현과 전달</li> </ul>        |
|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사고</li> <li>• 의사 결정</li> <li>• 문제 해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이해</li> <li>• 논점 구성</li> <li>• 대안 탐색</li> <li>• 합리적 의사 결정</li> </ul>            |
| 창의적 사고와 문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li> <li>• 언어 예술</li> <li>• 언어 공동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예술 향유</li> <li>• 창의적 언어 표현</li> <li>• 의사소통 문화</li> </ul>                         |
|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사고</li> <li>• 학문 탐구 자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윤리</li> <li>• 협력적 탐구 자세</li> <li>• 비판적 탐구 자세</li> <li>• 매체 이용과 표현의 윤리</li> </ul> |

### ◆ 과목 관련 정보

|                   |   |
|-------------------|---|
| <b>관련 과목 및 위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 국어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학습한 것을 심화할 수 있음.</li> </ul> |
| <b>관련 직업</b>      | 작가, 국어교사, 학자, 연구원, 언론인, 평론가, 통역사, 번역가, 프로듀서 등   |
| <b>관련 학과</b>      |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문예창작과, 언어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자율전공학부 등   |

## 고전 읽기

### ◆ 내용 체계

| 교과 구분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이수 단위 | 수능 관련 |
|-------|---|-------|-------|-------|-------|-------|-------|
|       |   |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
| 보통 교과 | 기초  | 국어    |       |       | ○     | 2~8   | -     |
| 과목 소개 | 2009개정교육과정의 '고전'을 변형·계승한 과목이다. 초·중·고 공통 과목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 학습자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문학 등 다양한 고전과 소통을 통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을 형성하고, 학문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교과서가 제작되지 않는 과목으로 고전의 선정 및 학습 활동의 구성 등에 교사의 재량권이 매우 크다. |       |       |       |       |       |       |

| 영역        | 핵심 개념  | 내용 요소   |
|-----------|--|---|
| 고전의 가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의 지혜</li> <li>성찰적 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의 특성</li> <li>고전 읽기의 중요성</li> </ul>  |
| 고전의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전으로서의 고전</li> <li>고전과 교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의 다양성</li> <li>고전을 통한 자아와 세계의 이해</li> <li>고전에 대한 가치 평가</li> <li>고전을 활용한 문제 해결</li> </ul> |
| 고전과 국어 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의 표현 방법</li> <li>국어문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li> <li>고전 읽기와 통합적 국어 활동</li> </ul>  |
| 고전과 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과 인성</li> <li>고전 읽기의 생활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 읽기의 생활화와 인성 함양</li> </ul>   |

### ◆ 과목 관련 정보

|            |   |
|------------|---|
| 관련 과목 및 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과목인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음.</li> <li>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에서 학습한 것을 심화할 수 있음.</li> </ul> |
| 관련 직업      | 작가, 교사, 학자, 연구원, 평론가, 번역가, 프로듀서, 연기자 등  |
| 관련 학과      |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사학과, 철학과,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문화컨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 스토리텔링학과, 자율전공학부 등  |

## 가. 대입을 준비하는 방법

고등학교는 과목에 따라 성적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공통 과목인 '국어'와 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만, 진로 선택 과목인 '고전 읽기', '심화 국어', '실용 국어'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목별 석차 등급을 토대로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데, 이 내신 등급은 대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은 절대적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업역량과 관련하여 비중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 대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모든 과목에서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이 기록되는데,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될 수 있도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독서의 중요성

고등학교에서는 호기심을 토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스스로 넓고 깊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호기심을 해결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험과 과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독서의 역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잘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줄거리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 비판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 공부 방법 Q&A

### 가. 현대시

**Q** 처음 보는 낯선 시가 나오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A**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서 ‘현대시’ 영역을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현대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보는 낯선 시가 나왔을 때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를 제대로 읽어나가는 능력을 길러 나간다면 현대시 영역에 대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시의 주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독해란 궁극적으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를 읽어나가는 과정은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시의 주제는 대개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적화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그에 따른 시적화자의 정서, 그리고 태도를 파악한다면 시인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적화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시적 대상이 나타나는데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적 대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시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주제를 파악한 후 시에 나타난 시어를 주제와 관련지어 시어의 함축적 의미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반드시 시의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시어라 할지라도 작품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둠’이라는 시어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나 고은의 ‘눈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납니다.

시의 주제와 시어의 의미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법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상전개방식, 이미지, 비유, 상징, 역설, 반어, 의인, 설의, 영탄, 방언의 사용, 대화 형식 등과 같은 표현법에 대한 개념과 효과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 후 시를 읽어나가면서 시에 나타난 표현법을 찾아서 그것을 시의 주제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표현법과 관련한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단한 연습입니다. 주요 시인의 대표작 1~2편을 위에서 말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서 시를 제대로 읽어나가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낯선 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나. 소설

**Q** 소설 지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소설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실력이 늘까요?

**A** 모든 문학 장르가 그러하듯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이 지니고 있는 장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설이란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 낸 허구의 세계를, 인물이나 사건의 전개를 통하여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 낸 산문문학입니다. 즉, 소설이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든 인물과 사건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3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는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설 공부하는 이들 요소의 제대로 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인데,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을 통해 형상화됩니다. 소설 속에서 형상화된 갈등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작가가 대립되는 인물이나 내적 갈등에서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갈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 인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다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인물의 설정과 사건 전개, 분위기의 조성 등 한 편의 작품을 조직화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을 꼽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소설을 읽어야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물 간의 갈등이나 내적 갈등이 구체화되는 사건이 어떠한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에서 작가마다 단어의 선택, 문장의 길이, 표현기법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작가의 개성적인 특성을 문체라고 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작가의 고유한 문체적 특성을 묻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를 통해 제시문에 나타난 소설의 일반적인 문체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자, 시점, 묘사, 대화, 어조 등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숙지하고 제시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소설을 통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소설을 올바르게 읽고 느낀 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소설에 관한 실력은 저절로 길러질 것입니다.

## 다. 문법

Q 문법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A 국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말의 구조를 파악하는 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 공부는 국어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교과서를 통해 말소리, 단어, 문장, 이야기, 의미 등 세부 영역별로 중요 개념들에 대해 철저히 이해한 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자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국어 문법을 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국어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으로는 음운과 음운체계, 음운의 변동 현상, 형태소의 개념, 단어의 형성 방법, 품사, 문장 성분의 종류,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문장의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사동 표현, 부정 표현), 비문의 종류, 어휘의 체계와 종류, 단어의 의미 관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사어와 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어미, 접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조사, 어미, 접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들 조사, 어미, 접사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에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등 국어 어문 규정을 살펴보면서 각 규정 속에 들어있는 문법적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어 어문 규정은 그 자체로 문법 공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문법 문제는 대부분 이 규정을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http://www.koreans.go.kr>)에서는 국어 어문 규정과 함께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어 문법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국어 어문 규정에 들어있는 문법적 원리까지 파악했다면 남은 것은 실천 연습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와 대수능 모의고사의 문법 영역 문제를 통해 지금까지 같고 닮은 문법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틀린 것이 있으면 답이나 해설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내용과 관련된 문법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 다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문법 공부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법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일취월장한 자신의 문법 실력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라. 독서

- Q** 책을 읽다가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독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아서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책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 토론입니다. 독서 토론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 토론이란 책을 읽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선택하고, 읽은 책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논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펼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토론 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독자는 책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토론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책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독서토론은 책 내용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의사소통하는 상호작용적 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은 토론할 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신이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를 나누고 싶은지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토론할 책을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책을 정독해야 합니다.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문제의식이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습자에게 책을 읽도록 권하고 그 책을 잘 읽었는지 말로 확인하는 과정이 발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까?’, ‘주인공의 선택이 과연 옳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 ‘작가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을까?’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발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쟁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쟁점을 토론의 논제로 정합니다. 그리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찬반 토론을 펼칩니다.

이러한 독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책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토론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독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훌륭한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 화법

**Q** 발표 수업 시간에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말을 할 때 자꾸 긴장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대입 전형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비중이 높는데 면접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은 비단 수업이나 면접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토론(debate)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조가 주어진 논제에 관하여 논거에 따른 주장과 이에 대한 검증, 의논을 되풀이함으로써 이성애 충실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토론자들은 발표 능력과 듣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토론 방법은 자유토론과 아카데미 토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 토론이란 정해진 순서나 형식 없이 이루어지는 토론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토론은 엄격한 규칙과 형식을 가진 과학적인 논쟁 방식의 교육 토론입니다. 자유토론도 좋지만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토론의 형식으로 토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카데미 토론 형식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CEDA 토론입니다.

CEDA 토론은 주로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는데 입론, 교차조사(교차질의, 반대신문), 반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토론자는 발언 순서에 상관없이 입론, 교차조사, 반론의 세 부분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CEDA 토론은 찬성1-입론, 반대2-교차조사, 반대1-입론, 찬성1-교차조사, 찬성2-입론, 반대1-교차조사, 반대2-입론, 찬성2-교차 조사, 반대1-반론, 찬성1-반론, 반대2-반론, 찬성2-반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CEDA 토론은 찬반양론이 경합하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풍부한 자료 및 사례 제시와 더불어 참신한 해석 및 논리의 개발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토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토론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거의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객관적일 때 자신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토론에 임해서는 긴장을 풀고 자신의 주장을 준비한 논거를 통해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전개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나 불충분한 논거 등을 찾아 교차조사를 통해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자신 측의 주장이 더 정당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론을 자주하면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토론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자율 동아리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론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잘 정리하여 그것이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면 학생부종합전형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II



## 전환기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



1. 국어과 징검다리 교수·학습 활동 개요
2. 대화의 힘! 토론으로 소통하기!
3.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4. 우리들의 이야기 UCC 만들기!
5.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
6. '詩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



## II. 전환기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

### 1

### 국어과 징검다리 교수·학습 활동 개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선생님이 주도하는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탐구하고 토의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에 진학 전 국어과의 학습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한 경험을 진로 탐색 및 전공영역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주제 및 목표

|       |   |  |
|-------|---|--|
| 활동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의 힘! 토론으로 소통하기!</li> <li>•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li> <li>•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들의 이야기 UCC 만들기!</li> <li>• ‘詩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li> </ul> |
| 활동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 역량)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li> <li>• (의사소통 역량) 모둠원과 자료를 만들며 협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발표를 할 수 있다.</li> <li>• (창의적 사고 역량) 중요 문법 개념을 익히며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른다.</li> <li>•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게임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을 기른다.</li> <li>• (창의적 사고 역량)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li> <li>• (의사소통 역량) 토론과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li> </ul> |  |

#### 활동 내용

|   |   |  |
|---|---|--|
| (주제1) 토론으로 소통하기   | (주제2) 진로 관련 독서활동 하기   | (주제3) 우리들의 이야기 UCC 만들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니콤보드로 토론 논제 만들기</li> <li>• 골든 서클로 주장과 근거 마련하기</li> <li>• 프로콘(Pro-Con) 토론으로 생각 넓히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지식맵과 워드 클라우드로 내용 이해하기</li> <li>• 플로우맵으로 내용 정리하기</li> <li>• 인터뷰로 내용 공유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표현하는 프로필 만들기</li> <li>• 나도 크리에이터! UCC 만들기</li> <li>• 우리반 모두 함께 립덱(Lib Dub) 영상 만들기</li> </ul> |
| (주제4)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   | (주제5) ‘詩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며 음운의 특성 정리하기</li> <li>• 품사 피라미드 만들기와 품사 분리수거하기</li> <li>• 문장의 짜임 분석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핑거맵으로 시와 친해지기</li> <li>• 생각과 느낌이 살아있는 모둠 협동시 쓰기</li> <li>• 플로우 차트(Flow Chart)를 활용하여 시상의 흐름 정리하기</li> </ul> |  |

## 2

## 대화의 힘! 토론으로 소통하기!

|          |   |    |       |
|----------|---|----|-------|
| 학년 및 교과  | 중학교 3학년 국어  | 차시 | 1-4차시 |
| 학습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다.</li> <li>2.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li> <li>3.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li> </ol> |    |       |
| 교수·학습 방법 | 문제해결학습, 모둠학습  |    |       |

### 교수·학습 활동

#### 생각열기 허니콤보드로 토론 논제 만들기

- 허니콤보드를 활용하여 진로 분야에 대한 이슈나 논의해 볼 주제를 찾아 발표해 본다.

#### 내용알기 골든 서클로 주장과 근거 마련하기

- 골든 서클의 'WHY, HOW, WHAT'을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한다.

#### 더 나아가기 프로콘(Pro-con) 토론으로 생각 넓히기

- 논제를 두고 찬반의 의견을 모두 경험해 본다.  
- 토론을 통해 확장된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 읽어보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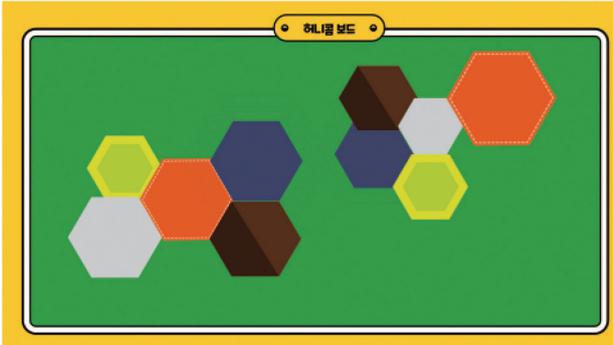
- 설득의 전략 수사학

#### 정리하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하기

## 대화의 힘! 토론으로 소통하기!

### 생각열기 | 허니콤보드로 토론 주제 만들기

- ◆ 진로 분야에 관련한 이슈와 논의해 볼 주제를 찾아 허니콤보드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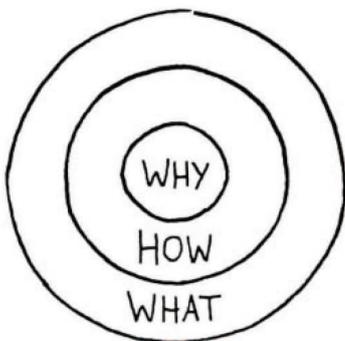
#### <허니콤보드란?>

개별 생각을 쓰고 나누고 확장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협동 학습 도구 중의 하나로, 육각형이 마치 벌집 모양 같다고 하여 '허니콤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 ◆ 진로 분야에 관한 이슈나, 주제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 생각을 정리하여 허니콤보드 1장에 하나의 생각을 적도록 한다.
- ◆ 각자 완성한 것을 칠판에 붙이고, 자신이 적은 생각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발표한다.
- ◆ 칠판에 먼저 붙은 것 중에서 자신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옆에 붙인 후 이유를 발표한다.
- ◆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주제를 진로별로 정하고, 개인별로 선택한 주제와 진로에 따라 모둠을 재구성한다.

### 내용알기 | 골든 서클로 주장과 근거 마련하기

## The Golden Circle



골든 서클

※ 골든 서클 설명 영상: <https://youtube.com/qp0HIF3Sf14>



활동 예시 자료

- ◆ 모둠별로 협의하여 붙임쪽지에 모둠별로 정한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
- ◆ 적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붙임쪽지 한 장을 겹표지로 만들어 덧붙이고 칠판에 부착하게 한다.
- ◆ 칠판에 부착한 설득 상황 중에서 자신의 모둠원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게 한 후, 이등분한 골든 서클을 그린 종이에 붙이도록 한다. 그리고 골든 서클의 안쪽 원부터 다음 항목을 모둠원들이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 Why: 골라온 설득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최대한 예상하여 기록하기
  - How: 골라온 설득 상황에 적합한 요청 방법을 최대한 예상하여 기록하기
  - What: 골라온 설득 상황에 필요한 주장을 최대한 예상하여 기록하기
- ◆ 골든 서클에 적은 내용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방법, 주장’을 펜으로 연결하게 한다.
- ◆ 모듬의 활동 결과물을 교실 벽면에 붙이고, 다른 모듬의 활동 결과물을 돌아보며 피드백을 붙임 쪽지에 적어 활동 결과물 옆에 붙인다.

### 더 나아가기 | 프로콘(Pro-con) 토론으로 생각 넓히기

- ◆ 토론 논제에 대한 찬반 양 측의 견해를 정리하며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프로콘 토론: 찬성(pro)과 반대(con)로 대립되는 논제를 두고 찬반의 의견을 모두 경험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토론

- ◆ 모듬별로 논제를 정한 다음 모듬원들을 2명씩 나누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선택하게 한다.
- ◆ 찬-반으로 나뉘어 마련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하게 한다.
- ◆ 한 차례 토론이 진행된 후 찬-반측의 역할을 바꾸어 토론하게 한다. 이때 앞서 나온 근거를 반복하는 것은 지양하고,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 ◆ 찬반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다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면에서 합리적인 것을 모아 정리 한다.
- ◆ 모듬에서 나온 의견은 찬반으로 나누어 행사 보드에 적어 칠판에 부착하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더 이야기를 나눈다.

◆ 다음 내용을 읽고 중요한 부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모르는 단어 등에 밑줄을 그어보자.

원래 수사학은 웅변을 체계화한 분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웅변가들에게 토론법이나 대중 연설시의 여러 화술을 훈련하는 데 적용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수사학은 곧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었다. 로마가 몰락하고 공공광장이 사라진 뒤 수백 년 동안 수사학을 문어(文語)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수사학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갖고 있던 영향력은 16세기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고전적 수사학(웅변술)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교육계에서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전적 수사학, 즉 웅변술에는 실용성과 철학의 양면성이 있었다.

웅변술을 연구한 역사가들은 대체로 수사학의 기원을 BC 460년대의 이탈리아 시라쿠사에 두고 있다. 그 무렵 시라쿠사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평등주의 정부 밑에서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이 동료 시민들 앞에 나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때 훌륭하고 설득력 있게 연설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약삭빠른 발언자들은 웅변교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웅변교사들은 성공적인 연설이론, 즉 웅변술을 개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이용법을 세 분야로 나누었다. 토의연설은 정치집회에서 조언할 때, 법정연설은 법정에서, 과시적 연설은 상황에 따라 남을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의식에서 사용되었다. 이들 각 분야에는 모두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거나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언어를 이용한 담론의 관련 분야였던 논리학과 논증법은 수사학보다는 오히려 철학에 속했다.(정치웅변, 법정웅변, 의식웅변) 로마는 비슷한 목적을 위해 이 이론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로마의 입법·사법 제도에서도 역시 수사학이 중요한 구실을 했고, 교육받은 계층은 효과적인 입법자와 정치가가 되기 위해 수사학을 배웠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학자(웅변가)는 BC 1세기의 키케로와 그보다 1세기 뒤에 활동한 퀸틸리아누스였다. 로마의 수사학은 그리스의 기술을 좀더 갖고 다듬어 5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연설문 작성법을 개발했다. 곧 창의력, 목적에 적합한 개념의 선택, 개념의 배치와 정리, 문제였다. 문제란 본질적으로 언어의 적절한 표현법을 뜻한다.

이렇게 하여 연설문이 완성되면, 이것을 암기한 다음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다. 연설문 작성과정이 이처럼 단계적으로 구분되자 수사학은 기계적 성질을 갖게 되었고, 이런 성질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로마가 몰락하자 공공광장이 사라졌고, 수사학은 신학자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의 설교 방식은 로마 시대의 웅변가들과 어느 정도 비슷했지만 연설 내용은 교회의 교리에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16세기에 이르자 수사학은 편지쓰기에도 적용 되었다. 프랑스의 수사학자 페트루스 라무스(피에르 드 라라메)의 영향으로 수사학은 주로 문체의 문제로 바뀌어 은유법·직유법·의인법 같은 수사법, 즉 비유적 표현의 집합체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학은 아무 내용도 없는 미사여구의 화려한 걸치레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다. 수사학은 주로 그램어 스쿨에서만 쓰이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그후 3세기 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수사학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르네상스 이후 인식론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르네 데카르트와 존 로크에서 시작하여 프리드리히 니체를 거쳐 토머스 쿤 같은 근대 철학자들에 이르는 동안 언어의 현실에 대한 관계는 꾸준히 변화했다. 즉 언어가 어떤 절대적 진리나 현실을 반영한다는 고전적 개념은 사라지고 언어는 주로 현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규정한다는 개념이 나타났다.

인식론의 이같은 변화로 고전적 수사학은 의사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인 언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본보기가 제공하고 있다. 진리는 이제 더이상 언어가 호소력있게 지시하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언어가 제공하는 관점에 관계되는 개념이 되었다. 탈구조주의 학파의 진보적 사상가들은 언어를 개인보다 먼저 존재하며 개인을 규정하는 문화적 구조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사학을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문화의 여러 담론 형태(예를 들면 영화·텔레비전·광고·금융시장·정당·교육제도 등)까지도 검토하는 방편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담론 형태는 남을 설득하여 특정한 결과를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에 근대의 다른 수사학자들은 언어를 통한 모든 의사전달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논증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담론의 분석과 해석은 청중(또는 독자)의 반응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2s3465a>)

## 정리하기

- ◆ ‘대화의 힘! 토론으로 소통하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자.

### 3

##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          |   |    |       |
|----------|---|----|-------|
| 학년 및 교과  | 중학교 3학년 국어  | 차시 | 1-4차시 |
| 학습 목표    | 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다.<br>2. 읽기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설명할 수 있다. |    |       |
| 교수·학습 방법 | 문제해결학습, 모둠학습  |    |       |

### 교수·학습 활동

#### 생각열기

#### ‘내용 지식맵’과 ‘워드 클라우드’로 글의 내용 파악하며 읽기

- ‘내용 지식맵’과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글을 분석적으로 읽는다.

#### 내용알기

#### ‘플로우 맵’으로 내용 정리하기

- 작품을 읽고 플로우 맵에 작품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플로우 맵을 작성하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 더 나아가기

#### 인터뷰 활동으로 독서 경험 나누기

- 인터뷰 활동을 통해 읽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읽기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다.

#### 읽어보기

#### 독서에 관한 명언 100선

#### 정리하기

####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하기



- ◆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 ◆ 짝과 플로우 맵을 바꿔 보며 질문하고 답한다.
- ◆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꿔 질문하고 답한다.
- ◆ ‘플로우 맵의 내용, 작품에서 궁금했던 내용, 읽기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한다.
- ◆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둠원들과 이야기하고 정리한다.

| 제목                |  |  |  |  |  |
|-------------------|--|--|--|--|--|
| 소제목               |  |  |  |  |  |
| 읽은 책<br>또는 작품     |  |  |  |  |  |
| 새롭게<br>알게 된<br>내용 |  |  |  |  |  |
| 그림으로<br>표현하기      |  |  |  |  |  |
| 읽기의 가치<br>와 중요성   |  |  |  |  |  |

## 더 나아가기 二 인터뷰 활동으로 독서 경험 나누기

- ◆ 활동지에 자신의 독서 활동 경험을 작성한다.
- ◆ 짝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포스트잇에 '기자' 라고 쓰고 가슴에 붙인다.
- ◆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뷰어를 찾아 앉는다.
- ◆ 짝이 된 기자와 인터뷰어는 1분간 인터뷰를 진행한다.
  - 기자는 인터뷰 내용을 포스트잇에 간단히 정리하며 질문한다.
  - 인터뷰어는 미리 작성한 자신의 독서 활동 경험을 기자에게 자세히 답한다.
- ◆ 1분이 지나면 기자와 인터뷰어의 역할을 바꾼다.
- ◆ 인터뷰어에서 기자가 된 학생이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인터뷰어를 찾아 앉는다.
- ◆ 새롭게 짝이 된 기자와 인터뷰어는 1분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가 종료되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 ◆ 모둠원들은 자신의 내용과 인터뷰한 내용을 돌아가며 말한다.
- ◆ 모둠 협의를 거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다.
- ◆ 모둠장은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학급용 전지에 붙여 정리한다.
- ◆ 각 모둠의 모둠장들은 전지에 붙은 포스트잇을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전지에 정리한 내용을 학급 전체가 공유한다.

| 인터뷰 내용  | 내 경험 정리 | 인터뷰 내용 정리                    |
|---|---------|------------------------------|
| 1.<br>기억에 남는<br>나의 독서<br>활동 경험<br><br>(앞으로 독서활동을<br>하기 위해 도움 받고<br>싶은 내용) |         | ※ 포스트잇을 붙여 간략하게 정리하며 인터뷰합니다. |
| 2.<br>기억에 남는 책<br><br>(관심 있는 독서 분야)                                       |         |                              |

- (1) 좋은 인류에게 불멸의 정신이다. - J. 밀턴 -
- (2)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과 접하였기 때문이다. - A. 프랜스 -
- (3) 목적이 없는 독서는 산보일 뿐이다. - B. 리튼 -
- (4)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 신용호 -
- (5) 책에도 볼 책이 있고, 안 볼 책이 있다. - 한국 속담 -
- (6)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짓이다. 독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지 결코 이제부터가 아니다. 오늘 읽을 수 있는 책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 - H. 잭슨 -
- (7)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다. - W. 워즈워스 -
- (8) 나쁜 독서는 나쁜 교제보다도 더 위험하다. - K. 힐티 -
- (9)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권의 이익이 있고, 책을 하루 읽으면 하루의 이익이 있다. - 괴문철 -
- (10) 책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또 없다. - 초오서 -
- (11)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 안중근 -
- (12) 책은 이를 펴보지 않으면 나무조각이나 같다. - 영국 격언 -
- (13)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 - 생피에르 -
- (14) 讀書三到: 책을 읽는 요령은 눈으로 보고(眼到)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口到) 마음에서 얻는 것(心到)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도이다. - 주희 -
- (15)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다. - 에디슨(영국 수필가) -
- (16)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가치도 없다. - 베버 -
- (17)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아야 한다. - 스페인 속담 -
- (18) 단 한 권의 책 밖에 읽은 적이 없는 인간을 경계하라. - 디즈레일리 -
- (19)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옛 친구를 만난다. - 중국 속담 -
- (20) 독서란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 쇼펜하우어 -
- (21) 좋은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새 벗을 얻는 것 같고, 전에 정독한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 스미드 -
- (22) 책 속에 길이 있다.
- (23) 책은 말없는 스승
- (24)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상을 잘 정돈하고, 마음가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책을 가져다가 가지런히 놓고는 몸을 바른 자세로 책을 대하고, 자세하게 글자를 보며, 자세하고 분명하게 읽을 것이다. - 주희 -

- (25)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 (26) 독서는 정신의 음악이다. - 소크라테스 -
- (27)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진짜 선생이다. - G. 바슐라르 -
- (28)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가옥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혼이 육체와도 같다. - 키케로 -
- (29) 가장 좋은 책은 영구 불멸하다. - J. 밀턴 -
- (30) 책 속에 모든 과거의 영혼이 잠잔다. 오늘의 참다운 대학은 도서관이다. - 칼라일 -
- (31) 책이 없다면 신도 침묵을 지키고, 정의는 잠자며, 자연과학은 정지되고, 철학도, 문학도 말이 없을 것이다.  
- 토마스 바트린 -
- (32) 책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있다. - 존 러스킨 -
- (33) 책은 그것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독자에게 갖가지의 즐거움을 안겨 준다. - 몽테스키외 -
- (34)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 키케로 -
- (35) 책은 가끔 문명을 승리로 전진시키는 수단이 된다. - 처칠 -
- (36)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 데카르트 -
- (37) 고전이란 누구나 읽은 것으로 자부하려 들지만, 실은 누구나 읽고 싶어하지 않는다. - 마크 트웨인 -
- (38) 책은 한 번 읽히면 그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읽고 애독하며, 다시 손을 떼어놓을 수 없는 애착을 느끼는 데서 그지없는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 러스킨 -
- (39)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 사르트르 -
- (40)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도서관을 절반 이상 뒤진다. - J. 보즈웰 -
- (41) 내가 인생을 안 것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는 아니다. 책과 접촉한 결과다. - A. 프랑스 -
- (42)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배양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한다. - 쇼펜하우어 -
- (43) 모든 책 중 나는 오직 사람이 그 자신의 피로 쓴 것만을 좋아한다. - 니체 -
- (44) 독서는 약처방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 권 한 권 읽어 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됨에 틀림 없다. - 패디먼 -
- (45)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 괴테 -
- (46) 독서는 하나의 창조 과정이다. - 에렌부르그 -
- (47) 독서는 일종의 탐험이어서 신대륙을 탐험하고 미개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 - 듀이 -
- (48) 언제고 괴로운 환상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너의 책으로 달려가라. 책은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로 너를 대한다.  
- T. 풀러 -
- (49) 기대를 하고 책장을 열고, 수확을 얻고, 책뚜껑을 덮는 책, 이런 책이 진실로 양서다. - A. B. 올컷 -

- (50) 배 없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책 없이 사상전에서 이길 수는 없다. - 프랭클린 루즈벨트 -
- (51) 독서같이 값싸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쾌락은 또 없다. - 몽테뉴 -
- (52) 생애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더욱이 여러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다한 사람이다. - 몽테를랑 -
- (53)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좋은 책을 읽기 위한 조건이다. 인생은 짧고 시간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 쇼펜하우어 -
- (54) 친구를 고르듯이 저자를 고르라 - 로스코몬 -
- (55)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다. - E. 버크 -
- (56) 과학에서는 최신의 연구서를 읽으라. 문학에서는 최고(最古)의 책을 읽으라. 고전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 리턴 -
- (57)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공부하지 못한다. - 회남자 -
- (58) 방구석에서 말 없는 나의 종(책)이 기다린다.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친구들이다. - B. W. 프록터 -
- (59) 아직 읽지 못한 책을 읽는 것은 새로운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은 죽은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 안지추 -
- (60)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소수의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 - 베이컨 -
- (61)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 벤저민 프랭클린 -
- (62) 사색하는 데 요령이 있는 것처럼 쓰는 데에도 요령이 있으며, 독서하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 - 디즈레일리 -
- (63)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 마크 트웨인 -
- (64) 때로 독서란 독자를 가르친다기보다 그들의 머리를 도리어 산만하게 한다. 덮어놓고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몇몇 좋은 저자의 책을 골라 읽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 톨스토이 -
- (65) 독서만 하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그저 먹기만 하려는 대식가와 같다. 아무리 영양 많고 맛 좋은 음식이라도 위액을 통해 소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이로우미 없다. - 실베스터 -
- (66)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줄 뿐, 그 자신의 것을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 (67) 독서는 충실한 인간을 만들고, 회의는 의지가 굳센 인간을 만들며, 쓰기는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 - 베이컨 -
- (68) 책이 없는 백만장자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책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지가 되는 것이 한결 낫다. - D. R. 매콜리 -
- (69) 기록을 살펴보면 사람이 늙어가며 겪는 생활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책을 읽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 아놀드 -
- (70)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자연히 알 수 있다. - W. 차몬드 -

- (71) 무엇이거나 좋으니 책을 사라. 사서 방에 쌓아 두면 독서 분위기가 조성된다 외면적이지만 이것이 중요하다. - E. A. 베네트 -
- (72) 머리를 깨끗이 하는 데에 독서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건전한 오락 가운데 가장 권장해야 할 것은 자연과 벗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 두 가지라 하겠다. - 도쿠토미 로카 -
- (73) 자손에게 만금을 물려준다 해도 그것은 한 권의 경전을 주는 것만 못하다. - 한서 -
- (74) 좋은 책을 읽노라면, 삼천 년도 더 사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이머슨 -
- (75) 육체는 슬프다. 아아, 나는 만 권의 책을 읽지 못한다. - 말라르메 -
- (76) 독서 습관은 닥쳐올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 모옴 -
- (77) 책을 읽는 데에 어찌 장소를 가릴소냐? - 이퇴계 -
- (78) 독서의 참다운 기쁨은 몇 번이고 다시 읽는 것이다. - 로렌스 -
- (79)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다름이 없다. - 에디슨 -
- (80) 돈으로만 치장한 집보다도 책이 가득한 서재를 소유하라 - 존 릴리 -
- (81) 그저 생각하고, 생활을 위해 독서하라. - 베이컨 -
- (82) 우리들은 가치 없는 책을 읽는 데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러스킨 -
- (83) 잡서의 난독은 일시적으로는 다소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로 돌아가는 것이다. - E. S. 마틴 -
- (84) 인생은 대단히 짧다. 더구나 조용한 시간은 너무나 짧다.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너절한 책을 읽어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E. 버크 -
- (85) 사대부는 3일을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어언(語言)이 무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기가 또한 가증(可憎)하다. - 황산곡 -
- (86) 책을 너무 많이 읽게 되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 - 임어당 -
- (87) 악서는 지적인 독약으로서 정신을 독살한다. - 칼 힐티 -
- (88)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 고문진보 -
- (89) 책을 산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 - 손경증 -
- (90) 어려운 글도 백 번이나 많이 읽으면 그 참뜻을 스스로 깨쳐 알게 된다. - 주희 -
- (91) 독서의 진정한 기쁨은 몇 번이고 그것을 되풀이하며 읽는 데 있다. - D. H. 로렌스 -
- (92) 책 읽는 민족은 번영하고, 책 읽는 국민은 발전한다. - 안병욱 -
- (93)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 - 명심보감 -
- (94) 책사(冊舍)도 학교다. 책은 교사다. - 안창호 -
- (95) 남아라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 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 - 두보 -

(96) 독서한 사람은 비록 걱정이 있으되 뜻이 상하지 않는다. - 순자 -

(97) 약으로써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써 마음을 다스린다. - 시이저 -

(98) 책 속에 길이 있다. 옳게 읽고 바로 가자.

(99) 책을 사느라고 돈을 들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훗날 만 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 왕안석 -

(100) 사람이란 그 얼굴이나 용맹이나 조상이나 문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다만 독서한 학문인이라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느니라 - 공자 -

## 정리하기

- ◆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자.

## 4

## 우리들의 이야기 UCC 만들기!

|          |  |    |       |
|----------|--|----|-------|
| 학년 및 교과  | 중학교 3학년 국어   | 차시 | 1-4차시 |
| 학습 목표    | 1. 매체의 특성에 따라 표현방식이 달라짐을 이해한다.<br>2. 공동체에서 협력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br>3. 복합양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활동을 할 수 있다. |    |       |
| 교수·학습 방법 | 문제해결학습, 모둠학습   |    |       |

## 교수·학습 활동

**생각열기** 나를 표현하는 프로필 만들기

-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SNS 프로필을 만들어 본다.
- 친구들과 서로 교환하며 프로필에 댓글을 달아 소통한다.

**내용알기** 나도 크리에이터! UCC 만들기

- UCC 제작을 위해 모둠별 제작 계획을 세운다.
- UCC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 제작 계획에 따라 영상으로 촬영한다.
-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영상을 편집하여 완성한다.

**더 나아가기** 우리반 모두 함께 립덱(Lib Dub)영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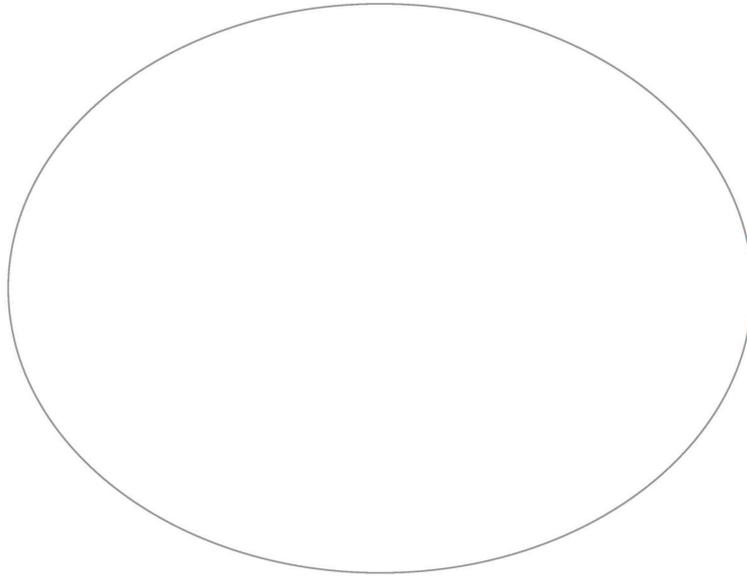
- 우리의 추억과 관련된 노래를 선정한다.
- 가사 소절을 나누고 소품을 준비한다.
- 촬영동선을 구상하여 연습한 뒤 촬영한다.

**읽어보기** 영상매체로 표현한 '이야기의 힘'

-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우영우'...선입견 깨고 흥행 잡는 K콘텐츠

**정리하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하기

생각열기 나를 표현하는 프로필 만들기



별명:

상태 메시지

댓글



\* 출처: 늘품이 2학년 국어(충남대학교 응용측정평가연구소)

- ◆ 나를 특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
- ◆ 자신의 관심사, 진로 희망 등을 포함하는 별명을 붙여 본다.
- ◆ 상태 메시지로 자신의 관심사, 진로 희망을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인다.
- ◆ 모둠 안에서 서로 돌려보면서 댓글로 소통한다.

◆ 제작계획서 작성하기

|                 |  |
|-----------------|--|
| 형식 / 종류         |  |
| 제작의도, 주제        |  |
| 줄거리             |  |
| 역할 분담           |  |
| 준비물,<br>촬영 도구 등 |  |

◆ 모둠별로 협의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UCC 형식(공익 광고, 패러디 광고, 짧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도록 한다.

◆ 간략하게 전체 줄거리를 작성하며 역할 분담과 준비물 등을 정리해 준비하도록 한다.

◆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시간 | 장면(그림/글) | 자막/효과음/<br>배경음악 | 대사/나레이션 | 촬영장소 | 준비물,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더 나아가기 二 우리반 모두 함께 립덱 영상 만들기

◆ 우리 반, 우리 학교 생활을 립덱 영상으로 표현해 보자.



### 립덱(lip dub) 영상이란?

- 음악에 맞춰 립싱크를 하는 뮤직비디오 형식 영상물
- 동선에 따라 멈추지 않고 원테이크 또는 롱테이크 방식으로 촬영하는 특징
- 많은 등장인물과 학교의 전경 등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음

\* 사진출처: 2020 배재고 립덱 영상

\* 참고 미소샘\_립덱뮤직비디오 영상만드는 방법 - [https://youtube/2v03p\\_EAIUQ](https://youtube/2v03p_EAIUQ)

◆ 우리반, 우리학교의 추억과 관련된 노래를 선정한다.

◆ 구성원 숫자에 맞춰 립싱크할 가사 소절을 나누고 소품 준비 계획을 세운다.

◆ 촬영 장소 및 이동 동선을 계획하되, 마지막에는 모두 모여서 부를 수 있도록 구상한다.

## 읽어보기 二 영상매체로 표현한 '이야기의 힘'

◆ 다음의 기사를 읽고 영상 매체로 표현한 '이야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우영우'...선입견 깨고 흥행 잡는 K콘텐츠

K콘텐츠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흥미 위주의 소재 선정에서 울림을 주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소재들을 제작하며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수익적인 성과만 거두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며 콘텐츠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 생략-

출처: '우블'부터 '우영우'...선입견 깨고 흥행 잡는 K콘텐츠(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32396488&mediaCodeNo=258>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2022. 7. 20.)

## 정리하기

- ◆ ‘우리들의 이야기 UCC만들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자.

## 5

##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

|          |   |    |       |
|----------|---|----|-------|
| 학년 및 교과  | 중학교 3학년 국어  | 차시 | 1-4차시 |
| 학습 목표    | 1. 음운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br>2.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br>3.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       |
| 교수·학습 방법 | 문제해결학습, 모둠학습  |    |       |

## 교수·학습 활동

**생각열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며 음운의 특성 정리하기

-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음절의 개념과 음운의 특성을 정리하기
- 모음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기

**내용알기** 품사 피라미드 만들기와 품사 분리수거

- 품사송 부르며 개념 확인하기
- 품사 피라미드 만들며 개념 익히기

**더 나아가기** 보드게임으로 문장의 짜임 탐구하기

- 비주얼싱킹으로 개념 확인하기
- 문장 뽀뽀 바크 게임으로 문장 만들기

**읽어보기**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하자!

- 우리말 우리글로 인류 문명을 앞장서 이끄는 날을!(김수업, 우리말은 서럽다 중)

**정리하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하기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

생각열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며 음운의 특성 정리하기

◆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편 골라 부르며, 그 노래를 소리 나는 대로 써 보자.

|                  |                        |
|------------------|------------------------|
| 노래의 전문을 옮겨 써 보자. | 노래를 부르며 소리 나는 대로 써 보자. |
|------------------|------------------------|

◆ 위에 쓰인 모음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자.

|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 원순 모음 | 평순 모음 |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 이중모음 |
|-------|-------|-------|-------|-----|-----|-----|------|
|       |       |       |       |     |     |     |      |

◆ 위에 쓰인 모음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자.

| 입술 소리 | 잇몸소리 | 선입천장소리 | 여린입천장소리 | 목청소리 |
|-------|------|--------|---------|------|
|       |      |        |         |      |



◆ 모둠 미션! 품사 분리수거하기!

**활동 순서**

1.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구절을 골라 2~3개의 문장을 써보자.
2. 문장을 단어 단위로 구분해보자. 활용하는 말은 활용형 또는 기본형으로 쓸 수 있다.
3. 구분한 단어를 아래의 품사 분리수거함에 담아 같은 품사끼리 모아보자.

<노래의 구절을 문장으로 쓴 다음 구분선(/)으로 단어 단위로 구분해 보자>

◆ 품사 분리수거함

|    |     |    |     |    |    |     |
|----|-----|----|-----|----|----|-----|
| 체언 |     |    | 수식언 |    | 용언 |     |
| 명사 | 대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 동사 | 형용사 |
|    |     |    |     |    |    |     |

|     |     |
|-----|-----|
| 관계언 | 독립언 |
| 조사  | 감탄사 |
|     |     |

## 더 나아가기 二 보드게임으로 문장의 짜임 탐구하기

- ◆ 문장의 짜임을 수형도, 마인드맵 등 비주얼씽킹으로 정리하기

비주얼씽킹: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등을 통해 체계화하고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시각적 사고 방법

- ◆ ‘문장 뽀뽀 바크 게임’으로 다양한 문장 만들기

| 주제어 | 문장의 짜임       | 만든 문장 |
|-----|--------------|-------|
|     | 출문장          |       |
|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
|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
|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
|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
|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
|     | 서술절을 안은 문장   |       |
|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

뽀뽀 바크: ‘작은 수능’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의 국민 게임

- ◆ 첫번째 게임에서는 교사가 주제어를 단어로 제시한다.
- ◆ 각 모둠에서는 모둠원이 협력하여 주제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문장은 의미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문장의 짜임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 ◆ 가장 먼저 완성한 모둠이 '정답'을 외치고, 자신들이 만든 문장을 발표한다.(한 문장당 10점씩 부여한다.)
- ◆ 이때 정답을 외친 모둠과 비슷한 모둠의 문장이 다른 모둠에 있는 경우 그 모둠이 점수를 얻고, 정답을 먼저 외친 모둠은 점수를 잃게 된다.
  - 서술어에 해당하는 의미가 유사하면 비슷한 문장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 진행에 도움이 된다.
  -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른 모둠이 만들 것 같지 않은 참신한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 첫번째 뺨뺨 바크가 끝나면 우승한 모둠에서 주제어를 제시하도록 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 읽어보기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하자!**

- ◆ 다음 내용을 읽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끼고 사랑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 인류 문명을 앞장서 이끄는 날을!

이 땅 위에는 수많은 문명이 솟아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삼천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걸쳐 끊임 없이 중심을 옮기며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오늘까지 늙지 않은 문명으로 살아 있는 것이 서유럽 문명이다. 그것은 서유럽 문명만이 소리글자를 만들어, 보잘것없는 백성까지 글말살이로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온전한 소리글자인 '한글'을 15세기부터 만들어 가졌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우지 못하도록 갖가지 그물을 쳐서 막았지만, 18세기부터는 한글을 읽고 쓰는 백성이 온 나라에 두루 퍼졌다. 그렇게 눈뜬 백성의 힘으로 왕조는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야욕에 불탄 침략자 일본을 몰아내어 광복을 이루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진영의 싸움으로 겨레가 둘로 갈라졌으나, 민주주의로 일어난 남녘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 우뚝 섰다. 이처럼 백성들이 누구나 쉽사리 글말살이에 뛰어들면서 세계 문명을 이끌 만한 힘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네 토박이말의 신세다. 우리네 토박이말이 지난 이천 년 동안 중국 한자말에 짓밟히고, 지난 일백 년 동안 일본 한자말과 미국말에 할퀴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의 느낌과 생각과 뜻을 만들어 내고 담아내는 토박이 말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아도 우리 겨레의 삶은 빛깔이 바랜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한자말, 일본 한자말, 미국말 투성이를 한글로 아무리 적어 놓아도 그것으로는 우리네 느낌과 생각과 뜻을 만들어 내지도 담아 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의 삶에서 스스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난 토박이말이라야 우리만의 빛깔을 뽐내는 느낌과 생각과 뜻과 얼을 만들어 내고 담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면 우리 겨레는

얼마든지 아득한 지난날 이 땅덩이의 햇불로 자랑스러웠던 것처럼 다시 자랑스럽게 일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그윽한 우리말로 남들이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꽃피워 세상 모든 겨레를 도우면서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 김수업, 『우리말은 서럽다』 가운데

## 정리하기

- ◆ ‘게임으로 익히는 문법 핵심 개념!’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자.

## 6

## ‘詩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

|          |  |    |       |
|----------|--|----|-------|
| 학년 및 교과  | 중학교 3학년 국어   | 차시 | 1-4차시 |
| 학습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li> <li>-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 있는 발상과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타인과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li> </ul> |    |       |
| 교수·학습 방법 | 개별활동, 모둠활동   |    |       |

## 교수·학습 활동

**생각열기** 핑거맵으로 시와 친해지기

- 시의 구절을 이용하여 핑거맵으로 친구 표현하기
- 친구들이 추천해 준 시 구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골라보기
- 심미적 체험을 통해 내 마음속 이야기(경험)에 귀 기울이기

**생각담기** 생각과 느낌이 살아있는 모둠 협동시 쓰기

- 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시로 표현하기
- 시의 운율 및 심미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내 마음속 이야기 표현하기
- 운율 및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모둠원들의 시를 모아 예쁘게 다듬기

**생각나누기** 플로우 차트(Flow Chart)를 활용하여 시상의 흐름 정리하기

- 본인이 쓴 부분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아래 칸에 그림이 나타내는 시적 상황을 글로 쓰기
- 다른 모둠원과 돌려 보면서 느낀 점을 댓글로 간단히 표현하고 서로 공유하기

**읽어보기** 삶을 성찰하는 내용의 시 추천하기**정리하기**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요약하기

## ‘시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

### 생각열기 **‘핑거맵’으로 시와 친해지기**

#### ◆ 가장 마음에 드는 시 고르기

- 시 4편이 담긴 개별 활동지를 나누어 준다.
-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편씩 낭독한다.
-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제목 또는 시어 등을 생각해 보게 한다.
- 낭독한 시 중에 모둠원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시를 선정한다.

#### ◆ 손 그리기

- 모둠별로 색지를 모둠원의 수만큼 나누어 준다.
- 모둠원들이 짝을 이루어 색지에 서로의 손을 그려 주게 한다.
- 모둠원들이 자신의 손바닥을 그린 종이를 받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손가락 하나에 한 가지씩 적도록 안내한다.

 클레이 질문 카드(청소년 편, 인생 편, 진로 편 등) 중 5개를 골라 질문에 대한 답을 손가락 하나하나에 적도록 안내한다.

#### 질문 예시

-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이 있다면?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 5년 후 나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꼈던 일은?
- 스스로 생각해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내가 어려웠던 순간 배웠던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가?
- 미래의 한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언제를 가장 보고 싶나?

#### ◆ 친구에게 어울리는 시의 구절 찾기

- 색지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한다.
- 색지를 받은 학생은 손가락에 쓰인 친구의 특징을 읽은 다음, 그에게 어울리는 시의 구절을 찾아 손바닥 부분에 적게 한다.
- 다시 색지를 자신의 오른쪽 사람에게 전달하고 두 번째 활동을 반복하게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앞 사람과 같은 구절을 적지 않도록 안내한다.
- 색지가 손 그림의 주인인 처음 학생에게 돌아오면 활동을 마무리하게 한다.

◆ 생각 나누기

- 각자 자기 손 그림에 있는 시의 구절을 읽고,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는 구절에 표시를 한다.
-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은 모둠원에게서 그 구절을 적은 까닭을 듣게 한다.



활동 예시 자료 1



활동 예시 자료 2

**생각담기** = 생각과 느낌이 살아있는 모둠 협동시 쓰기

◆ 모둠 협동시 창작 주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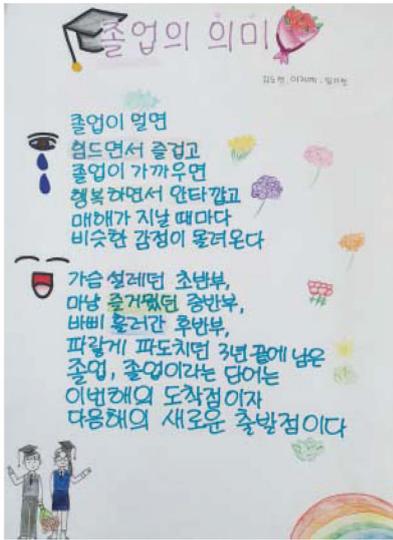
- 모둠원들이 선정한 시의 주제, 중심 소재, 화자 등을 분석한 후, 모둠원들이 쓸 시의 주제를 정한다.
-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떠오른 생각을 정리한 후 가장 적절한 주제를 선정한다.

◆ 개별 창작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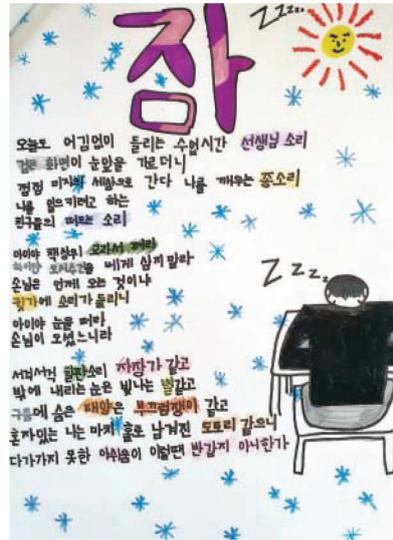
- 학습지를 통해 시의 특성(운율, 심상, 다양한 표현기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한다.
- 모둠에서 정한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시를 창작한다.
  - 모둠원별 5행 이상 1연 정도 창작하도록 한다.
  - 가치 있는 생각이나 경험을 담도록 한다.
  - 우리 말의 가락을 잘 살려서 표현하도록 한다.
  - 창의적이고 신선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협동시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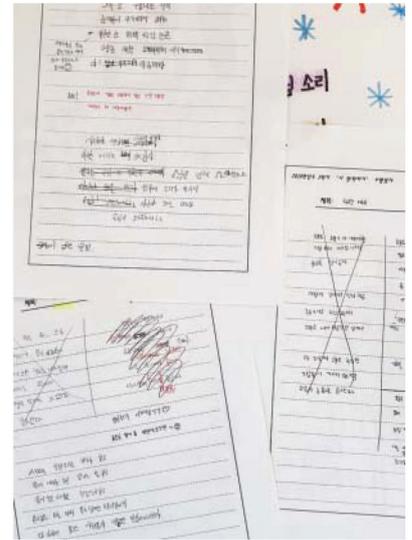
- 모둠원들이 쓴 개별시를 돌려서 읽는다.
-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개별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연결한 시를 운율이 잘 느껴지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갖고 다듬는다.



모둠 협동시 활동 예시 1



모둠 협동시 활동 예시 2



모둠 협동시 활동 예시 3

**생각나누기** 플로우 차트(Flow Chart)를 활용하여 시상의 흐름 정리하기

◆ 각자 본인이 쓴 부분별로 중심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미리 그림 크기에 맞는 종이를 잘라 모둠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림을 완성한 후 해당 칸에 붙여넣는다.
- 그림 아래에 써야 할 내용도 각자 따로 써서 오려 붙인다. 모둠원별로 펜 색을 다르게하여 모든 모둠원이 참여한다.
- 각 상황에 따른 본인의 정서를 상세하게 적는다.
- 모둠별 작품을 교실 벽에 게시한 후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한다.
- 각 모둠 협동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포스트잇에 작성한 후 붙여 준다.
- 이후 모둠별로 모여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한다.

**플로우차트(Flowchart)란?**

플로우차트(Flowchart)란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단계와 결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이다. 각각의 단계는 다이어그램 도형 안에 표현이 되며 진행 순서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러한 플로우차트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그램으로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된다.(구글, 공부하는 블로그)



## 상처가 더 꽃이다

유안진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백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 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살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도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 정리하기

- ◆ “시와 함께 내 안의 소리 듣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학습한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보자.

◆ 모둠활동지

| 내용 나누기                    | 그림으로 표현하기 | 시적 상황 |
|---------------------------|-----------|-------|
| (     )행<br>~<br>(     )행 |           |       |

우리들이  
추천하는  
시

읽기 자료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이 어디 있으랴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 분분 난 분분 춤 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래를 위하여

정 호 승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 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 산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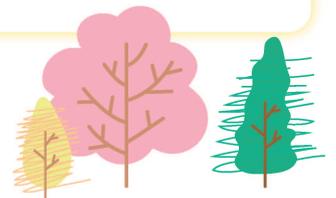
나 희 덕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 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 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III



#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2022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21.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
- 김수업, 『우리말은 서럽다』, 나라말, 2009.
- 거꾸로 학습 활동자료집, 미래엔.
- 늘품이 중학교 2학년, 충남대학교 응용 교육측정·평가연구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8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가이드 북, 201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서, 2018.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우영우’...선입견 깨고 흥행 잡는 K콘텐츠」, 2022. 07. 20.
- 중학교 국어 수행 활동 자료집, 천재교육.

## 총괄

이상진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기획

이숙희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우금령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연구 및 집필

이주희 봉화중학교 교감

김상원 안동고등학교 교사

김현승 풍천중학교 교사

손미정 금천중학교 교사

이유경 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서은화 구미인덕중학교 교사

중3 전환기 학생들의 성공적인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 2022 자유학기제 - 고교학점제

# 징검다리 교수·학습 자료집 국어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우: 36759)  
전화. 054-805-3366 팩스. 054-805-3389

자료 탑재 교육과정지원포털/자료실

홈페이지 <https://curri.gyo6.net>